

이홍림 · 편집 2팀장

《고고학자 조유전의 한국사 미스터리》 조유전 · 이기환 지음 | 황금부엉이 | 452쪽 | 값 14,500원

황금부엉이의

생생한 발굴 경험으로 풀어낸

흥미로운 역사의 비밀들

고고학이라는 학문은 일반인들에게는 역사나 역사학보다 낮은 것이 사실이다. 자칫 어렵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우리와 만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고학이다. 발굴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유물과 유적을 찾고, 숨겨졌던 역사의 비밀을 환하게 세상에 드러내는 고고학은 역사라는 모자이크를 한 조각씩 완성해 내는 중요한 학문인 것이다.

처음 받아든 원고는 두툼했다. 한국사의 주요 유물·유적 현장 발굴을 주도해 온 고고학자 조유전 선생의 발굴 인생을 망라했다고 할 수 있는, 목직한 원고였다(선생님께서서는 그럼에도 미처 풀어놓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며 아쉬워하셨지만). 무엇보다, 읽어 내려가는 순간부터 그 흥미진진한 내용에 폭 빠져들게 만들 만큼 재미있었다.

이 책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저자가 이야기하듯 풀어나간 발굴과 역사의 숨겨진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신문배달 소년이 우연히 발견하게 된 함안의 마갑총, 27만 년 전 구석기인의 생활을 보여주는 연천 전곡리유적, 2,300년 전의 최첨단 산업이라 할 수 있는 화살촉 제작을 보여주는 완주 갈동의 거푸집, 한반도에 왜 일본식 무덤이 존재하는지 그 수수께끼를 다룬 장고형 고분, 성개방의 나라 신라 안압지에서 발견된 남근, 희대의 발굴이자 최악의 발굴이 됐던 무령왕릉 발굴….

각각의 유물과 유적에 관련된 이야기는 한국 고대사의 흐름과 발굴의 뒷이야기를 아우르며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미군의 눈에 우연히 발견된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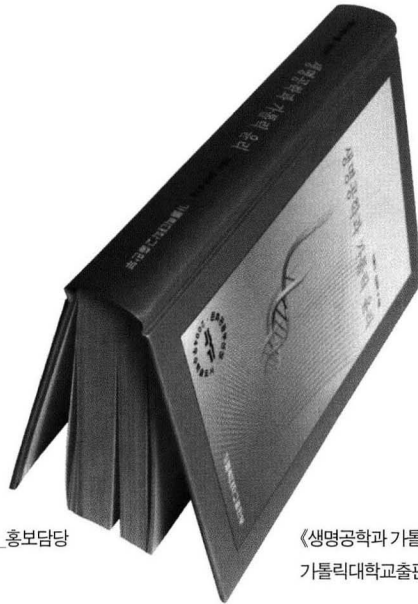
조각이 한반도의 구석기문화를 증명하는 돌도끼로 밝혀지고, 물구덩이 속에서 더할 수 없이 화려한 백제의 금동대향로가 발견되며,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옛 토기 조각을 만나거나 개무덤이라고 치부되었던 곳에서 신라시대의 다채로운 토용을 마주치는 일은 고고학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놀라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발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기대와 흥분, 때로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 우리 역사의 숨결을 전해주는 유물과 만나는 감동과 희열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한편 낙후되었던 발굴 기술과 부족한 경험, 장비와 인력의 결핍 등으로 졸속으로 발굴을 마무리지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책을 만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수백 장의 도판들과 씨름한 것. 발굴 현장의 사진들과 여러 유물, 유적의 도판을 선별하고 설명을 붙이는 작업을 위해 휴일에도 나와 작업을 해야 했던 것이다. 원고를 다듬고 보충한 공동저자인 이기환 기자 역시 여러 개의 박스에 가득 찬 참고 자료들을 뒤적이며 고생하셨다. 사진 자료의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 각 박물관에 공문을 보내고 출처를 명기하느라 몇 번씩 교정지를 다시 뒤적이던 기억도 새롭다.

이렇게 해서 나온 책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이달의 읽을 만한 책'으로 선정되었을 때의 기쁨은, 편집하면서 듬뿍 느끼게 된 고고학이라는 학문과 발굴의 매력, 놀랍고도 신비한 우리 역사의 비밀에 좀더 많은 독자들이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

가톨릭대학교출판부

인간생명을 볼모로 한 생명공학에 브레이크를 밝다



전민규 · 가톨릭대학교출판부 영업 홍보담당

《생명공학과 가톨릭 윤리》 이동익 외 지음 |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572쪽 | 값 25,000원

생명이란 무엇인가? 인간생명의 인위적 조작과 폐기는 가능한가? 과학기술적인 진보가 진정 인간이 원하는 진보인가? 이대로 인간의 학문이 인간 자신을 과멸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도 좋은가? 생명공학이 생명에 대한 소유권을 잠식하고 있다!

우리 출판부는 오늘날 인간을 대상으로 시도되는 생명공학이라는 이름의 장밋빛 환상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그것이 선의善意든 악의惡意든 생명공학의 발전이 야기하는 여러 윤리적 문제와 논쟁들에 대해서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 지난 2002년 계간 <가톨릭 신학과 사상> 가을호와 겨울호, 두 차례에 걸쳐 '생명공학 시대의 가톨릭 윤리 I·II'를 특집으로 기획한 바 있었다.

《생명공학과 가톨릭 윤리》는 여기에 실렸던 논문을 중심으로 편집되었다. 당시 잡지에는 모두 여덟 편의 논문이 실렸지만, 생명공학이 우리 사회 내에서 뜨거운 윤리적 이슈로 떠오른 중요한 시기에 이 분야에서 다뤄지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모두 담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에, 교회 안팎의 새로운 필자들을 찾고 부족한 내용들을 보태어 총 18개의 장으로 이 책을 재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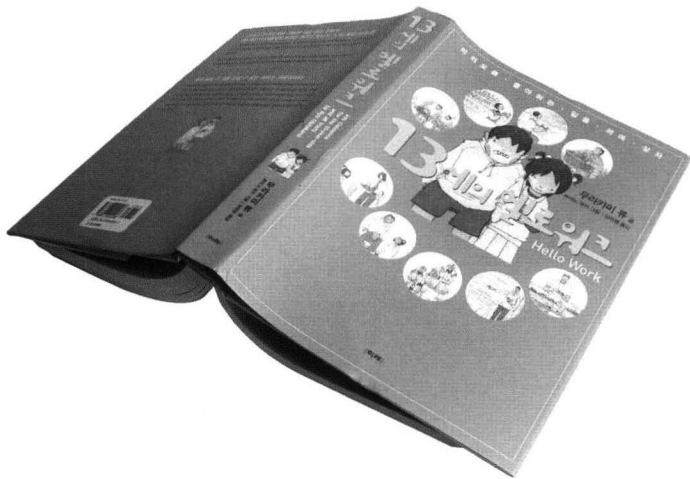
이동익 신부 외 10명의 공동 저자들은, 인간 그 자신을 신화神化하여 생명까지도 계획,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생명공학의 독단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생명과학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기술공학적

조작들(인간배아 줄기세포배양, 이종 이식, 생명 복제, 유전자 조작 식품, 인공 출산, 뇌사와 장기이식, 안락사 등)을 가톨릭교회가 가르치는 “인간생명의 존엄성”의 측면에서 집중 조명하고 훼손된 창조 질서의 복원을 요청한다.

생명공학은 문자 그대로 인간의 삶과 죽음 사이에서 펼쳐지는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인 까닭에, 단순히 전문가들만의 관심 분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죽음, 생명과 건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의 이해와 관심이 절실한 분야다.

이 책은 누구도 방관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성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웠던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앞으로 그것이 가져올 의료적 혜택과 경제적 효과 그 이면을 파헤치고 있다. 또한 인간생명을 볼모로 한 생명공학 기술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라는 중대한 윤리적 논의에 소중한 첫발을 내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윤리적 판단이나 철학적 성찰이 미처 뒤따르기도 전에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공학의 발전에 제동을 걸고, 장차 다가올 인류의 미래에 지금 바로 여기에서 현재를 사는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것과, 받아들이고 감내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생명공학과 가톨릭 윤리》는 그 역할이 크다고 하겠다. 이를 격려라도 하듯, 지난 8월 이 책은 '2004년도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었다. **▶**



이 레

원미선 · 편집장

《13세의 헬로워크》 | 무라카미 류 글 |
하미노 유카 그림 | 강라현 옮김 | 이레 414쪽 | 값 20,000원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직업이 있었다

《13세의 헬로워크》는 일본의 대표적 저술가 무라카미 류가 500여 종의 다채로운 직업들을 흥미롭게 정리한 책이다. 신종 직업들이 가장 많이, 가장 먼저 생겨난다는 일본에서 기획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책답게 아이들의 흥미를 끌 만한 신종 유망 직업들을 풍부하게 소개해 세상에는 대통령, 의사, 변호사, 공무원 외에도 수없이 많은 멋진 직업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상에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열세 살 아이들을 위해 기획되었다고 하지만 어른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준다.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일본 대중문화의 선두주자 무라카미 류는 갖은 끼를 한껏 발휘하며 재미있는 아이디어와 이야기들로 자칫 백과사전처럼 지루해지기 쉬운 책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노래방, 야한 것 외에는 좋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실망한 어린이를 위한 '특별편' 까지 기획해 장래 희망에 시큰둥한 아이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대목은 놀랍고 기발하다.

한국어판을 출간한 것은 일본에서 내내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지키며 폭발적으로 팔려나갔기 때문은 아니다. 책의 원서 띠지에 제일 잘 보이게 쓰여 있던, '좋은 학교를 나와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안심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라는 경고 내지 선언적 문구가 무릎을 칠 만큼 신선했기 때문도 아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만을 목표로 점수 관리 벌

레들이 돼가는 현실 속에서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만 하며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고 말하는 이 책의 주장이 큰 반향을 일으킬 거라고 기대할 만큼 편집자들이 순진하지는 않았다. 이 책을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의 엄마들에게도 소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책이라면 불러올 수도 있을 변화에 대한 희망'이, 한국어판에 따르는 난점들에도 불구하고, 편집자들을 설레게 했기 때문이었다. '아, 우리들이 어렸을 때도 이런 책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마음에 이 책을 아이들에게 서둘러 안겨주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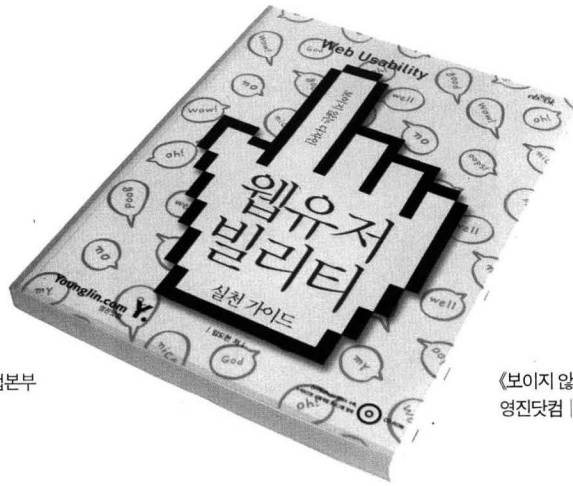
직업 소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원저작권자와 협의를 하고 명칭과 정보를 국내 실정에 맞게 바꾸는 데 많은 노력이 들었다. 그러나 편집자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일했다.

어린 시절 품었던 장래희망을 추억하는 시간도 나누었고, 회사를 그만두면 앞으로 어떤 직업으로 새 출발할 것인지 사뭇 진지하게(!) 토론하기도 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양한 직업들의 진면목을 찾아낸 기쁨은 컸다.

'미치도록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자'고 말하는 이 책의 자신만만함이 이제 이 책을 읽을 아이들의 미래에 작은 변화를 한 가지라도 불러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레**

영진닷컴

『웹유저빌리티』 그 거품은 걷혔다, 하지만



박주란 · 단행본 사업본부

《보이지 않는 디자인 웹유저빌리티》 임도현 지음 | 영진닷컴 | 305쪽 | 값 20,000원

2002년, 웹디자인과 인터넷을 좀 안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생소한 단어들 이 들리기 시작했다. 코딩하고, 디자인하고, 좀더 남들보다 화려하고, 신기한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너도나도 머리를 싸맬 때, 텍스트만 가득한 페이지 하나로 웹사이트 디자인의 새로운 역사를 제안하는 사람들이었다. 유저빌리티, 사용성, 사용자 중심의 정보설계 등이 그 때 등장한 단어들이다.

초기에 이미 폭발적으로 성장해 버린 웹사이트의 규모와 디자인, 우리들은 사용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 그런 단어들이 안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니, 모르면 혼자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였을까. 갑자기 외국의 전문서적을 가져다 읽고, 마구 번역되어 나오기 시작했다. 너도나도 사용성이 중요하다 말하고 다녔고, 여기저기서 사용성 강좌가 줄을 이었다.

당시 이런 강좌는 얼마나 참석자가 많았는지 어딜 가도 빈자리는 없었다. 그러던 열풍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후, 지금 국내 유수의 업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은 무엇이 달라졌을까. 정말 사용자들을 위한 웹사이트로 전부 바뀌어졌을까?

《보이지 않는 디자인 웹유저빌리티》는 순수하게 국내에서 개발된 웹사이트 사용성을 위한 도서다. 당시의 번역서들은 책을 덮고 나면 남의 이야기가 되는 내용들이었다. 물론 사용성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우리에게 제시하여 고개를 끄덕이게 했지만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웹에서의 행동양식은 외국사용자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는 것. 미국 사용자들이, 일본 사용자들이 모두가 “그렇다더라~”는 정보를 전해 듣는 것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인터넷 문화가 이 책에서는 유일하게 분석, 사용성 향상에 이용하고 있다.

당시 그림 하나 없는 번역서를 들여다보면서 고개만 끄덕일 때 국내사례로 집필된 이 책은 너무 쉬워 보이기만 했다. 한마디로 들고 다녀도 ‘간지(폼)’가 나질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 책의 장점이다. “쉽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용성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것!

실제로 사람들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부터 움직이는 과정을 관찰하여 근거를 만들고, 결과를 적용한 웹사이트를 독자들에게 바로 보여주었다. 국내 최고의 유저빌리티 전문가인 저자 임도현 씨는 다양한 번역서 진행과 연구,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잡지에서 읽을 수 있는, 착착 감기는 문장으로 디자이너라면 알아야 할 사용성을 설명한다.

다양한 국내외의 사례, 비교를 통한 사용성의 진실, 그리고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가능한 모든 면에서의 사용성에 접근한다. 유행이 지난 말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에 유저빌리티, 사용성은 지금도, 미래에도 너무나 유효할 디자인의 요소다.

좀 안다하는 사람들이 아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쉬운 사용성의 바이블 《보이지 않는 디자인, 웹유저빌리티》. 디자이너라면, 지금 인터넷을 통한 비즈니스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봐야 할 책이다. **★**